

글쓰기 기초 체력을 다지는 습관, 〈바른 문장 쓰기 사이트〉 이용하기

글쓰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면,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기본적인 맞춤법을 모르거나 반복적으로 비문을 쓰는 경우를 꽤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대학 내에서 맞춤법이나 문장 쓰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 정도 글쓰기 능력은 대학 오기 전에 이미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라는 생각이 대학 교육에서는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법에 맞는 글쓰기에 대한 교육은, 현 여건상 수업 내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글쓰기교실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문제풀이를 통해 보다 쉽게 어법에 맞는 글쓰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바른 문장 쓰기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2014년부터 교육 문항 개발 및 사이트 구축 작업을 시작하였고 2015년 감수 및 수정을 거친 뒤, 지난 2016년 11월부터 학내에 공개하고 있다. 사이트를 오픈한 11월에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SNS 공유하기’ 이벤트에 30명, ‘직접 문제 풀어보기’ 이벤트에는 10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바른 문장 쓰기 사이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기, 2) 문장 바르게 쓰기(기본편), 3) 문장 바르게 쓰기(심화편)의 세 개 과정으로 나누어 문제 및 그에 따른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각 과정은 ‘진단평가-연습문제-확인평가’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해설의 경우 학생들이 보다 친근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관련 배경 지식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이트에 탑재된 교육 문항들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수업 과제물을 토대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것으로, 학생들의 필요에 보다 부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학생들의 개별 이용을 독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여러 교과목과 연계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 ● ●
김 영 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다음은 <바른 문장 쓰기 사이트>의 구성 화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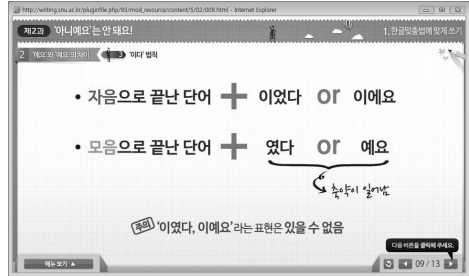
1) 홈화면



2) 전체 문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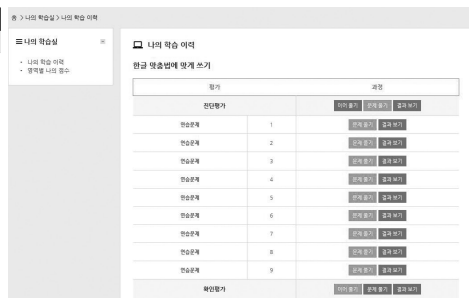
3) 학습자료실



4) 연습문제



5)나의 학습실



본 서비스는 서울대학교 CTL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학내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11월 한 달 간 이용자 수는 278명이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은 별도의 수업을 듣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국어 사용 능력을 점검받고, 자주 틀리는 맞춤법 및 잘못된 문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쓰기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체계적인 국어 학습을 위하여 추가 문항 개발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